

일개 도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하태희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Convergent Influence of Self-esteem and Empathy Ability on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a City

Tae-Hi Ha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256명이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시행되었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학년, 전공만족도, 정신건강시설 봉사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자아존중감, 인지공감능력, 정서공감능력과 각각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3) 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년과 인지공감능력으로 이들 요인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23%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인지적 공감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융복합적 영향

Abstract This study was examined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empathy ability on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were 256 nursing students who recruited from one college. Data collected from August 29 to September 9, 2019.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25.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according to grade, satisfaction for major and mental health volunteer experiences. 2) The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cognitive empathy ability and emotional empathy ability. 3)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ing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were grade and cognitive empathy ability and these factors accounted for 23% of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Through this study, cognitive empathy ability was confirmed as a factor affecting the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 Nursing college student, Self-esteem, Empathy ability,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Convergent influence.

*Corresponding Author : Tae-Hi Ha(hth1427@daegu.ac.kr)

Received March 31, 2020
Accepted May 20, 2020

Revised April 27, 2020
Published May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문화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며, 인지, 감정, 행동 영역에서 유의한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다[1]. 이러한 정신질환의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해서는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올바른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데 [2], 특히, 정신간호현장에서 간호사가 지니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및 정신사회재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어릴 때부터 접해온 사회문화적 환경 내에서 학습된 행동 중 하나로서[4], 그 사회의 문화, 가치관, 사회계층, 직업, 성격 특성,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적 경험, 교육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5]. 즉,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은 간호사로서 근무하게 되면서 갑자기 형성되기보다는 개인의 가치관, 경험, 교육 등과 관련되어 서서히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6]. 그러므로 간호사로서의 진로를 확정하고 전공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간호대학생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 교육, 자기 이해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태도 함양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간호대학생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관련 질환에 대한 이론적 학습 및 실습과 연관되어 영향을 받고 있음은 분명하다[7]. 반면, 정신질환에 대한 모든 치료 및 간호는 대상자와의 치료적인 관계를 통한 신뢰감 형성에서 시작되며[1], 이러한 정신질환자와의 모든 치료적 관계 및 신뢰감 형성은 대상자에 대한 이해 및 공감에서 출발한다[8]. 이렇게 볼 때 정신질환 및 질환자에 대한 건전한 태도의 함양을 위해서는 관련 질환에 대한 이론적 교육 및 실습과 아울러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감능력은 인지적인 차원과 정서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인지적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상태를 인지적으로 식별하고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정서적 공감능력은 타인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 공감하는 사람에게 촉발되는 정서적 각성상태의 정도를 말한다[9]. 이러한 타인에 대한 인지적이며 정서적인 공감 및 관심은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없는 불가능하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가치로운 사람으로서 받아들이 수 있을 때 나 자신에서 나와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가치롭게 여김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또한 높은 성향을 나타낸다[10-15].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및 편견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정신간호학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전후의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2,3,7,16], 공감능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정신질환에 대해 긍정적이고 편견이 덜함이 보고되었다[8,17]. 반면, 자아존중감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자아존중감이 정신질환자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보고되었다[18].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타인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공감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8,17],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 및 수용 측면의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 및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긍정적인 태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자료로 사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공감능

력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의 4년제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간호대학생으로서 연구목적, 익명성, 비밀보장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배부한 300부의 설문지 중 260부(86%)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4명을 제외한 256명을 최종 분석 단위로 선정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상 대상자 수는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의 크기 .15, 독립변수 12개일 때 최소 표본수는 184명 이상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 대상자 수는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가 개발한 도구를 Jon이 변안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9]. 이 도구는 긍정적인 문항 5개, 부정적인 문항 5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서 긍정적인 문항에서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부정적인 문항에서는 역문항 처리하며 점수의 범위는 10~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Jon의 연구[19]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2.3.2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Mehrabian과 Ebstein[20]의 정서공감 척도, Davis[21]의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C) 검사, Bryant[22]의 정서공감 척도를 Park[23]이 변안 및 Jeon[9]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이며, 인지공감능력 15문항, 정서공감능력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전체 도구의 범위는 최소 30점에서 최대 150점이다. 역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뛰어난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계수로 산출한 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Jeon[9]의 연구에서 전체 공감능력 .83, 인지공감능력 .67, 정서공감능력 .80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5, .72, .80으로 나타났다.

2.3.3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Madianos 등[24]이 개발하고 Choi[25]가 번역, 수정 및 보완한 Attitudes to Severe Mental Illness(ASMI)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서 1점 '그렇지 않다'에서 4점 '그렇다'로, 전체 도구의 범위는 최소 30점에서 최대 120점이다. 역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계수로 산출한 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원 도구 개발 당시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편의 추출에 의해 D시의 4년제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간호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8월 29일부터 2019년 9월 9일까지였으며,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 후 설문지는 무기명 처리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참여를 철회하고 싶을 경우 언제나 가능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10분 정도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IBM SPSS 2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서술적 통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3)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차이 분석은 수준이 두 집단인 경우 독립 t-검정, 세 집단 이상인 경우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후 유의한 경우 사후검정은 Scheffe 방법을 이용하였다.
- 4)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순수 효과와 주요 요인을 찾기 위해 단계 입력방식의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12.9%, 여학생 87.1%였고, 학년은 1학년 27.0%, 2학년 24.2%, 3학년 25.0%, 4학년 23.8%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이 85.2%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 유무는 무교가 69.5%였다. 전공 만족 정도는 ‘보통’이 49.6%로 가장 많았으며, 삶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만족’이 66.8%로 가장 많았다. 가족관계 만족 정도에서도 ‘만족’이 79.7%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인 건강 정도는 건강한 편으로 느끼는 대상자가 62.9%로 가장 많았다. 정신건강시설 봉사 경험은 봉사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32.8%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3	12.9
	Female	223	87.1
Grade	1st	69	27.0
	2nd	62	24.2
	3rd	64	25.0
	4th	61	23.8
Social economic status	High	7	2.7
	Middle	218	85.2
	Low	31	12.1
Religion	Have	78	30.5
	None	178	69.5
Satisfaction for major	Satisfied	119	46.5
	Moderate	127	49.6
	Dissatisfied	10	3.9
Satisfaction for life	Satisfied	171	66.8
	Moderate	78	30.5
	Dissatisfied	7	2.7
Satisfaction for family relationship	Satisfied	204	79.7
	Moderate	40	15.6
	Dissatisfied	12	4.7
Health status	Healthy	161	62.9
	Moderate	66	25.8
	Not healthy	29	11.3
Mental health volunteer experience	Yes	84	32.8
	No	172	67.2

3.2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자아존중감 평균 평점은 3.2점, 공감능력 평균 평점은 인지공감능력 3.6점, 정서공감능력 3.8점이었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평균 평점은 3.0점이었다.

Table 2. Degrees of Self-esteem, Empathy Ability and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N=256)

Variables	M±SD	Min	Max	
Self-esteem	3.2±.50	1.6	4.0	
Empathy ability	Cognitive	3.6±.39	2.6	4.7
	Emotional	3.8±.48	2.3	4.9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3.0±.51	1.3	3.9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사회경제적 수준($F=4.98, p=.008$), 전공 만족도($F=10.78, p<.001$), 삶에 대한 만족도($F=43.20, p<.001$), 가족관계 만족도($F=10.25, p<.001$), 신체적 건강 정도($F=10.52, p<.001$), 정신건강시설 봉사 경험 유무($t=2.71, p=.03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전공이나 삶에 대해 만족할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느낄수록,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해하고, 정신건강시설 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대상자의 인지적 공감능력은 종교 유무($t=2.00, p=.047$), 전공 만족도($F=9.08, p<.001$), 가족관계 만족도($F=3.28, p=.03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종교가 있고, 가족관계를 만족하게 느끼며, 전공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인지적 공감능력 점수가 높았다. 대상자의 정서적 공감능력은 성별($t=-2.39, p=.017$), 종교 유무($t=2.63, p=.009$), 전공 만족도($F=7.6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종교가 있으며, 전공에 대해 만족해할수록 정서적 공감능력 점수가 높았다. 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학년($F=22.99, p<.001$), 전공 만족도($F=4.62, p=.011$), 정신건강시설 봉사 경험 유무($t=2.13, p=.03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으며, 전공에 대해 만족해 할수록, 정신건강시

Table 3. Self-esteem, Empathy Ability and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56)

Characteristics		Self-esteem			Cognitive empathy ability			Emotional empathy ability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3.1±.55	-0.84	.403	3.6±.45	-0.46	.649	3.6±.48	-2.39	.017	2.9±.43	-1.40	.164
	Female	3.2±.50			3.6±.38			3.8±.48			3.0±.52		
Grade	1st(a)	3.3±.51	1.92	.127	3.6±.35	0.28	.843	3.9±.45	0.87	.457	3.2±.33	22.99	<.001 (a,b,c>d)
	2nd(b)	3.2±.49			3.6±.42			3.8±.48			3.1±.35		
	3rd(c)	3.2±.45			3.6±.37			3.8±.43			3.1±.33		
	4th(d)	3.1±.50			3.6±.43			3.7±.56			2.6±.72		
Social economic status	High(a)	3.5±.29	4.98	.008 (a,b>c)	3.6±.33	0.28	.757	3.7±.37	0.11	.899	3.0±.39	0.45	.637
	Middle(b)	3.2±.51			3.6±.40			3.8±.49			3.0±.51		
	Low(c)	3.0±.42			3.5±.37			3.8±.43			3.1±.52		
Religion	Have	3.3±.43	1.72	.087	3.7±.43	2.00	.047	3.9±.43	2.63	.009	3.0±.51	-0.48	.630
	None	3.2±.53			3.6±.37			3.7±.49			3.0±.51		
Satisfaction for major	Satisfied(a)	3.3±.41	10.78	<.001 (a>b,c)	3.7±.37	9.08	<.001 (a>b,c)	3.9±.45	7.66	.001 (a>b)	3.1±.47	4.62	.011 (a>c)
	Moderate(b)	3.1±.54			3.5±.38			3.7±.46			3.0±.53		
	Dissatisfied(c)	2.9±.64			3.3±.47			3.6±.45			2.6±.55		
Satisfaction for life	Satisfied	3.4±.41	43.20	<.001 (a>b,c)	3.6±.39	2.88	.058	3.8±.49	1.81	.165	3.0±.56	0.80	.450
	Moderate	2.9±.48			3.5±.36			3.7±.46			3.1±.40		
	Dissatisfied	2.4±.59			3.6±.49			3.9±.42			3.0±.42		
Satisfaction for family relationship	Satisfied(a)	3.3±.48	10.25	<.001 (a>b)	3.6±.37	3.28	.039 (a>b)	3.8±.48	2.16	.118	3.0±.52	0.61	.543
	Moderate(b)	2.9±.50			3.5±.42			3.7±.43			3.0±.51		
	Dissatisfied(c)	3.1±.60			3.7±.46			3.7±.48			3.1±.25		
Health status	Healthy	3.3±.46	10.52	<.001 (a>b,c)	3.6±.41	1.47	.231	3.8±.49	0.42	.659	2.9±.56	2.51	.083
	Moderate	3.1±.54			3.5±.34			3.7±.46			3.1±.40		
	Not Healthy	2.9±.51			3.6±.41			3.8±.47			3.1±.44		
Mental health volunteer experience	Yes	3.3±.44	2.17	.031	3.6±.35	0.11	.912	3.8±.41	0.46	.646	3.1±.44	2.13	.034
	No	3.2±.53			3.6±.41			3.8±.51			3.0±.54		

설 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3.4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56)

Variables	Self-esteem r(p)	Empathy ability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r(p)
		Cognitive r(p)	Emotional r(p)	
Self-esteem	1.00			
Empathy ability	Cognitive	.36 (<.001)	1.00	
	Emotional	.26 (<.001)	.57 (<.001)	1.00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18 (.004)	.17 (.006)	.17 (.007)	1.00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자아존중감(r=.18, p=.004), 인지공감능력(r=.17, p=.006), 정서공감능력(r=.17, p=.007)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5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 인지공감능력, 정서공감능력은 모두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상관관계가 있어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고, 일반적 특성 중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학년, 전공 만족도, 정신건강시설 봉사 경험을 예측변수로 투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 학년, 전공만족도, 정신건강시설 봉사

경험은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입력 및 분석하였다.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67~.99로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 요인(VIF)도 1.00~1.49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84, p=.006$). 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인지공감능력과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학년이였다. 즉, 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타 학년에 비해 4학년의 태도가 부정적이었으며, 인지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23% 설명하였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N=256)

Predictors	B	SE	β	t	p	Tolerance	VIF
Grade(4th)	-16.22	1.98	-.45	-8.21	<.001	.99	1.00
Cognitive	0.40	0.14	.15	2.80	.006	.99	1.00
Adj. $R^2=.23(F=7.84, p=.006)$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전공이나 삶에 대해 만족할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느낄수록,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해하고, 정신건강시설 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에서도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업 성취도가 중위권 이상의 학생이 하위권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 및 이와 관련된 높은 학업 성취 수준, 봉사 활동을 통한 이타적인 행동의 경험은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안정감, 원만한 가족관계, 신체적인 건강 및 이와 관련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공감능력은 종교가 있고, 전공에 대해 만족해할수록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 모두 높았다. 특히, 가족관계를 만족스럽게 느낄 경우 공감능력 중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았으며, 정서적 공감능력의 경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았다.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공감능력이 높았다.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종교가 있는 경우 공감능력 점수가 높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공감능력도 높았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9]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정서 공감능력이 높았다. 이상에서 본 연구 및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공감능력 또한 전공만족정도 및 종교생활을 통한 영적인 건강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가족관계의 안정감은 인지적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서적 공감능력에 있어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부정적인 반면, 전공에 대해 만족해하고, 정신건강시설 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8]에서는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에 대한 연구[17]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심한 것으로 보고되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역시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해할수록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회복 가능한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신질환자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간호라는 돌봄을 제공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년이나 정신건강시설 봉사 경험 유무와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에 국한되어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17]를 감안해 볼 때 이에 대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하여 간호대

학생의 성별, 학년, 정신건강시설 봉사 경험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관성 확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상호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18],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7]에서는 성숙한 자아상태인 성인자아 경향일수록 정신질환에 대해 자비로운 태도를 보였다. 일반인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이 덜 심한 경향이 있었으며 [29], 정신장애인 부양가족 역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신장애인 가족으로서의 낙인 지각을 덜 하는 경향이 있었다 [30].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자신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성숙하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타인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왜곡되지 않고, 긍정적이며, 자비로운 태도를 지니며, 정신장애인 가족으로서의 낙인감 또한 덜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공감능력이 클수록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8],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은 감소하였다 [6,17]. 또한,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들 [11,13-15,31]에서도 정상관계가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인은 타인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러한 성향은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지공감능력과 학년으로 보고되었다. 공감능력은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8,17],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은 줄고 임상수행능력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6,32]. 특히, 타인의 감정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그 감정을 수용하는 능력으로서의 인지공감능력 [9]은 그 능력이 높을수록 이타적인 행동의 경향이 높다. 또한, 정서적 공감능력보다 인지적 공감능력이 이타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며 [9], 정서적 공감능력과 달리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적 중재로서

인지적 공감능력의 향상이 가능하다 [33]. 뿐만 아니라, 인지적 공감능력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 능력인 사교성, 대인적응성에 대한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34]. 그러므로 인지적 공감능력 중심의 공감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편견 및 차별행동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지적 공감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정신질환자 간호에 있어서 환자의 감정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이타적 간호 행위를 늘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학년이 보고되었다. 즉, 다른 학년에 비해 4학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었다. 이에 대해 선행되어진 연구는 거의 없어 비교 분석은 어려웠으나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나 공감능력에 있어서도 유의하지는 않으나 4학년이 낮은 점수 경향을 나타난 것을 감안해 볼 때 졸업을 앞둔 4학년 간호대학생의 다양한 스트레스원이 잠재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졸업 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온 선행연구들 [35,36]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이에 대한 반복연구 및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특성 및 스트레스원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23%로 비교적 낮게 나온 결과를 볼 때 추후 잠재적 외생변수들에 대한 통제 및 측정 오차의 제거가 가능한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활용하여 순수 개념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진다.

이상에서의 본 연구결과 및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긍정적 태도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인지적 공감능력 함양을 위한 간호학과 교육과정상의 체계적인 교육, 다양한 경험 및 훈련이 요구된다.

셋째, 졸업을 앞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을 밝혀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태도 유지의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졸업학년의 취업 스트레스를 비롯한 다양한 잠재적 외생 변수의 가능성을 철저히 통제하지 못했으며, 일개 도시의

일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 방법상 횡단적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과관계의 추론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REFERENCES

- [1] H. S. Park, et al. (2020). *Psychiatric nursing: contemporary practice, 6th edition*. Hyunmoon, Seoul.
- [2] S. Yang & S. J. Yu. (2001). The stigma toward the mental illness and mentally ill patients among nursing students between before and after learning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3)*, 421-435.
- [3] Y. S. Kim & K. D. Park. (2016). The prejudice towards the mental illness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community mental health among nurs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ety, 6(9)*, 537-546.
DOI : 10.35873/ajmahs.2016.6.9.050
- [4] Y. N. Ko & H. J. Sung. (2003). Effects of mental health social welfare practice on the prejudice against mental disorders.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11*, 227-245.
- [5] C. J. Kim, Y. S. Kim & B. Y. Lee. (1988). The effect of psychiatric education upon the attitudes toward mental disorder.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e, 27(1)*, 96-107.
- [6] J. H. Song.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discriminatory behaviors and prejud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gainst the mental illnes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7(2)*, 63-70.
DOI : 10.22678/JIC.2019.17.2.063
- [7] H. S. Kim & M. R. Eom. (2005).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and ego state according to psychiatric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3)*, 276-284.
- [8] M. J. Kim. (2018). The effect of empathy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6(3)*, 9-15.
- [9] B. S. Jeon.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10] E. M. Lee, S. Y. Kim & S. H. An. (2016). Elementary students' attitude toward disabilities: knowledge, self-esteem, and empathy.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3(4)*, 725-738.
- [11] M. H. Kim & M. S. Kim. (2014). The influence of adult attachment on depression, self-esteem, empathy in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a major in health science. *Journal of Social Sciences, 29(1)*, 23-37.
- [12] J. A. Lee & Y. J. Lee. (2016)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empathic abilit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6)*, 73-91.
- [13] S. L. Lee. (2019). Convergence relationship of self-esteem, empathy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7)*, 87-92.
DOI : 10.15207/JKCS.2019.10.7.087
- [14] I. S. Lee. (2019). Study on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s, and empathy in juni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0)*, 358-365.
DOI : 10.5762/KAIS.2019.20.10.358
- [15] I. J. Lee & N. M. Yang. (2015).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or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empathy.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3(1)*, 179-198.
DOI : 10.35151/kyci.2015.23.1.009
- [16] Y. H. Chung, J. S. Choe, E. H. Kim, J. S. Kim & H. K. Choi. (2008). A study on the stigma hel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against mental illness and mentally ill patients. *Social Research, 16*, 195-210.
- [17] W. H. Moon, M. G. Kwon & Y. H. Kim. (2016). Converging influence of empathy and prejudice against mental illness on discriminatory behavior toward the mentally illness patients i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6)*, 81-88.
DOI : 10.15207/JKCS.2016.7.6.081
- [18] D. W. Lee. (2019). *On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mental health promotion facility employees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 [19] B. J. Jon.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Journal of Yonsei University, 11*, 107-129.
- [20] A. Mehrabian, N. Epstei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4)*, 525-543.
DOI : 10.1111/j.1467-6494.1972.tb00078.x
- [21] M. H. Davis.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103.
- [22] B. K. Bryant.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DOI : https://psycnet.apa.org/doi/10.1037/t01742-000
- [23] S. H. Park. (1993). *Experimental study on empathy in relation to the altruistic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 [24] M. Madianos, M. Economou, L. E. Peppou, G. Kallergis, E. Rogakou & G. Alevizopoulos. (2012). Measuring public attitudes to severe mental illness in Greece: development of a new scale.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iatry, 26(1), 55-67.
DOI : 10.4321/S0213-61632012000100006

- [25] G. Y. Choi. (2014). *The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owards mental illness using Korean version of the ASMI scale*.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Pusan.
- [26] M. H. Nam & H. O. Kim. (2015). Relations betwee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f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 263-273.
DOI : 10.14400/JDC.2016.14.1.263
- [27] M. O. Chae. (2016).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95-103.
DOI : 10.5762/KAIS.2016.17.5.95
- [28] E. J. Choi & G. Y. Choi. (2015). The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of university toward mental illness using Korean version of ASMI scale. *Journal of Holistic Nursing Science*, 8, 163-174.
- [29] O. N. Lee, S. W. Kim & Y. S. Kang. (2018). The effect of mental illness stigma on attitude towards psychiatric medica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5(3), 461-478.
- [30] H. J. Min & W. C. Jeong. (2016).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igma and self-esteem of the mental disabled's famil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0(1), 65-86.
- [31] Y. J. Lee & J. H. Rho. (2019).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ntrol on empathy of undergraduate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2), 401-410.
DOI : 10.35873/ajmahs.2019.9.2.040
- [32] J. H. Park & S. K. Chung. (2015).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699-7707.
DOI : 10.5762/KAIS.2015.16.11.7698
- [33] H. S. Park & H. S. Koh. (2018).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communication ability, cognitive-emotional empathy as vocational competency.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8(2), 75-95.
DOI : 10.35273/jec.2018.8.2.004
- [34] S. S. Gu. (2012).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bilities and social abilities of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5(10), 377-393.
DOI : 10.20971/kcpmd.2012.55.4.377
- [35] I. S. Lee. (2011). A study on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depression, and employment str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5), 2487-2500.

- [36] M. O. Chae. (2019).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4), 229-238.
DOI : 10.14400/JDC.2019.17.4.229

하 태 희 (Tae-Hi Ha)

장학원



- 1994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 학사)
- 2005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2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대구대학교 간호

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치매, 영상영화치료
- E-Mail : hth1427@daegu.ar.kr.